

高麗時代 여인들의 襦·裳의 형태에 관한 研究

水原大學校 生活科學大 衣類織物學科

副教授 金 文 子

目 次	
I. 序 論	참고문헌
II. 襦·裳의 형태	ABSTRACT
III. 結 論	

I. 序 論

古記錄을 통한 고려의 복식연구는 중국 송나라 사신이었던 徐兢이 쓴 『高麗圖經』에서 겨우 그 일단을 찾아 볼 수 있으며, 『高麗史』 與服志에 있는 毅宗朝 『詳定古今禮』가 있으나 이것이 武臣政權期 및 그 진통기였던 文武鬭爭期에 그대로 濫用되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다만 고려시대는 정치, 문화 전반에 걸쳐 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던 사회이니만큼 高麗佛畫에 나타난 권속이나 중생들의 복식에서 고려인들의 복식형태를 살펴볼 수 있음은 다행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또한 드물기는 하지만 당시의 인물

초상화의 복식 착용 모습이나 腹藏遺物을 통해서도 고려인의 복식을 살펴볼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여인들의 의복은 統一新羅期の 의복을 그대로 襲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원복속기에 들어와서 일부에서 몽고복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 보이고 있으나 그림에 나타난 여인상들을 보면 고려 말기까지도 통일신라기의 복식형태가 유지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고대로부터 일찍진 우리 고유의 裳의 차림새가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같은 것은 조선조 초기의 여인복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先行 研究에서는 고려시대 男女 服飾 전반에 걸쳐 연구¹⁾하거나, 또는 遺物이나 佛畫 등의 특정 圖像을 중심으로 연구²⁾ 또는,

1)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대출판부, 1974.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9.

백영자, 『한국복식』 한국방송대학교 T. V 강좌. E.B.S. 제작 1991-1998 현재까지 방영

_____, 『한국의 복식』, 서울: 경춘사, 1993.

임명미, 『한국의 복식문화(I)』, 서울: 경춘사, 1996.

2) 李京子, “木偶像의 服飾考察”, 『服飾』 제2호, 한국복식학회, 1978.

채금석, “佛畫속에 표현된 服飾의 構造와 形態研究—高麗時代를 중심으로”, 『服飾』 제23호, 한국복식학회, 1994.

(이논문은 1987년도 숙명여대석사학위논문임. 지도교수: 한국방송대학교 백영자)

柳喜卿, “1302년 阿彌陀佛腹藏 服飾의 樣式과 特性”, 온양민속박물관편, 1991.

權瑛淑·李珠英·張賢珠, “海印寺 金銅毘盧遮那佛 腹藏服飾과 高麗後期 衣服의 特性”, 성보문화재연구원 학술발표회, 1997. 5

고려여인복 전체를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경우³⁾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여인들의 기본 복장을 형성하는 襦·裳 양식만을 따로 분류하여 그 차립새 및 형태를 고려시대 여인들의 圖像과 유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襦裳의 형태

1. 襦裳의 착용 양식

高麗佛畫 등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고려여인들의 襦·裳 착용양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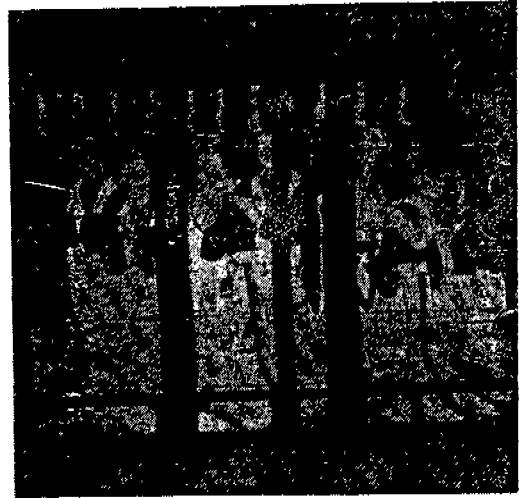
우선 하나는 통일신라기의 당, 송의 여인 복장 처럼 襦를 먼저 착용하고 그 위에 裳을 걸치는 방법과 또하나의 착용방법은 우리의 고유의 착장방법인 裳 위에 襦를 착용하는 것이다.

(가) 襦를 먼저 입고 그 위에 裳을 착용하는 방법 이같은 모습은, 고려초기의 것으로 추측되는 慶南 居昌에 있는 屯馬里古墳 壁畫의 여인상들을 들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東室 西壁 奏樂하는 여인상(그림 1)⁴⁾은 구름 위에 組衣를 날리고 있으나 옷입은 모습은 筒袖의 右襟인 襦 위에 裳을 입었는데 裳은 폭과 길이가 너그러우며 주름은 허리선에만 잡혀 있는 듯하다. 치마허리는 다른 감으로 달고 표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 마치 통일신라기의 복식형태와 같다.

한편 14세기의 것으로 생각되는 일본 福井縣에 있는 西福寺 소장 觀經序品變相圖⁵⁾ 중 9명의 侍女像(그림 2)의 복장을 볼 수 있다. 襦는 홍색이 3,



(그림 1) 慶南 居昌 屯馬里古墳 壁畫 女人像
『韓國美術全集』4 壁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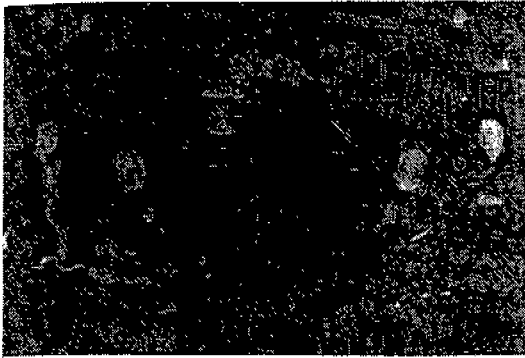
(그림 2) 觀經序品變相圖 侍女服(日本:西福寺)
『高麗時代の佛畫』

3) 柳喜卿, “高麗服飾樣式—여자복식을 중심으로”, 학예지 4, 육사 육군박물관,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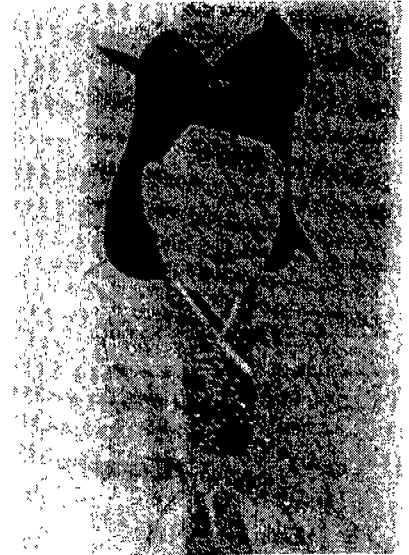
4) 金元龍(編), 『韓國美術全集』4 壁畫, 서울: 同和出版社, 1980, 도판 117, p. 130, 149~50.

이 고분은 1972년에 발굴된 것으로 고분 연대는 12, 3세기가 될 것으로 추측되며 이 인물상은 巫, 佛, 道를 함께 섞은 고려 특유의 天女라고 생각되고 있다.

5) 觀經變相圖는 인도 마가라 왕국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과 그 구제 과정을 기술한 『觀無量壽經』이라는 경전의 내용을 회화한 것으로, 비극적인 사건을 서술한 序品만을 표현한 것이 觀經序品變相圖이다. 西福寺 소장 觀經序品變相圖와 같은 내용으로 두점이 있는데 하나는 충선왕4년, 즉 1321년의 그림으로 일본 京都의 大恩寺 소장인



(그림 3) 觀經十六觀變相圖 女人像(日本:知恩院)
『高麗時代의 佛畫』



(그림 4) 河演 부인상
『名人肖像畫大鑑』

녹색이 3, 담홍색이 3사람이다. 그 위에 裳이라고 하기보다 褙이라고 할 정도로 길고 넓은 치마를 입고 있다. 치마허리와 치마끈 즉 홍덕왕복식금제의 腰褱를 두르고 뒤로 홍색 장식 매듭을 한 組를 길게 늘이고 있다. 그리고 褙를 두르고 있는데 대부분 담홍색이고 홍색도 있다. 이는 마치 당, 송의 여인을 보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⁶⁾

원복속기인 충숙왕 10년(1323년) 薛冲이 그린 것으로 일본 知恩院 소장 觀經十六觀變相圖⁷⁾ 공양인 여인상(그림 3)에 상류층의 일반여인인 듯한 모습이 있는데 이들은 褙를 입고 그 위에 裙을 입고 있다.

그후의 여인복식으로 보이는 河演(1376년 우왕 2년~1453년 단종1년)의 부인상(그림 4)이 있다. 하연부인은 동정이 달린 褙를 먼저 입고 그 위에 군을 입었을 것이다. 저고리에 동정이 달린 경우는 袍의 양식이기는 하지만 온양박물관 소장품의 '紫衣'⁸⁾의 유물에서도 볼 수 있다. 허리부위에 보이는 것은 허리와 허리끈으로 다른 재질로 만든 것으로 보이고, 그 밑에는 보이지 않아 알 수가 없다.

(나) 裳위에 褙를 착용하는 방법

『고려도경』에 보이는 상하귀천 없이 함께 착용

다. 또 하나는 이 그림의 경우인데, 이것은 연대가 확실치 않은데 문명대교수는 대은사의 것보다 제작 연대가 이른 것으로 보면 어떨까 한다고 하였다.

『韓國의 美7-高麗佛畫』p.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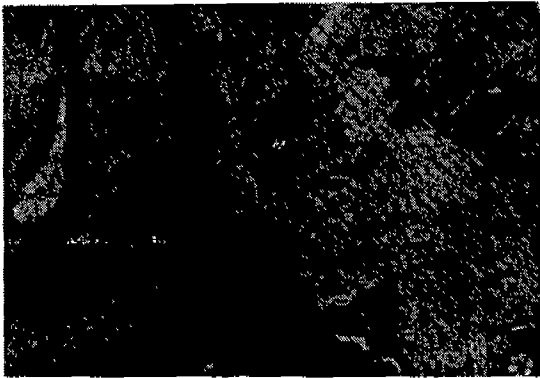
6) 柳喜卿, “高麗服飾樣式-여자복식을 중심으로”, 학예지 4, 육사 육근박물관, 1995, p.118.

7) 觀經十六觀變相圖는 석가여래가 왕비인 위데휘에게 가르쳐준 아미타부처 및 그 세계를 관상하는 16가지 방법을 표현한 것으로 화면은 기본적으로 좌우에 13관을 가운데에 나머지 3관을, 즉 구품과 설법장면 그리고 극락의 정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 정토결사에 있어서 서민구체적 입장에서부터 구성된 16관변상도가 14세기 전반기에 고려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었다 한다.

韓國美術研究所(編), 『해설편-高麗時代의 佛畫』, p.23, 82.

8)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阿彌陀佛腹藏 유물은 發願文의 연대로 보아 1302년의 것이나 입었던 흔적이 있으므로 이보다도 앞선 것이라 생각된다.

의복으로는 3점이 나왔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고려말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3점의 의복은 紫衣, 中衣, 上衣로 이름을 붙였다.



(그림 5) 水月觀音圖 女人像(日本:大德寺)
『高麗時代の佛畫』



(그림 6) 趙肸 婦人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하였다는 白紵衣, 黃裳이라는 것은 우리 고유양식으로 치마 위에 상의를 입는 형태였을 것이다.

일본 大德寺 소장 水月觀音圖⁹⁾(그림 5) 좌측 하단에 공양 물을 가지고 가는 여인상이 묘사되어 있는데 모두 뒷모습이 나와 있으며, 우측여인은 黃色 襦를 花文이 있는 홍색 치마 위로 입고 있다. 그리고 유에는 고름을 매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襦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띠가 없어지고 앞에 매듭단추나 작은 실용성의 고름이 생기게 되었는데 바로 그 모습을 표현하는 그림이다. 여기에도 동정이 달려 있다. 저고리 소매는 좁아지는 경향을 느낄 수 있는데, 치마는 앞에 허리 끈이 길게 늘어졌고 치마폭이나 길이도 다소 줄어든 듯이 보인다.

말엽의 趙肸(1341년 충혜왕 복위2년~1401년 태종1년)의 부인상(그림 6)이 袍 속에 입고 있는 양식은 裳 위에 襦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짙색 치마를 흰 끈으로 매어 나란히 늘렸고, 그 위에 雲文 치마 보다 좀더 진한 짙색 비단

저고리를 착용했는데 깃과 수구는 龜文 자색비단을 대고 있다. 지금의 회장저고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시대가 비슷한 (그림 4)의 河演 부인상의 착장방법과 다른 차림새를 보이고 있어, 같은 귀족층에서도 조선 초까지는 두 가지의 차림새가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부모은중경중 변상도에 보이는 여인상(그림 7)¹⁰⁾은 주름진 치마위에 옆트임이 있는 襦를 착용하고 있는데, 후술할 襦의 유물에서도 옆트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襦의 양식으로 옆트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민여인상을 보이는 방배동 출토 木偶像(그림 8)이 2점이 있는데, 襦와 裳을 입고 있다. 목우상의 유는 길이는 전술한 아미타불복장 유물의 상의보다 넉넉한 듯하나 품은 목우가 좁은 편이다. 앞모습이 공수를 하고 있어 가려져서 보이지 않으나 작은 옷고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띠는 뒷모습으로 보아 없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깃은 유물에서 볼 수 있는 목판깃이라고 추측이

9) 水月觀音圖는 觀音菩薩과 예배를 드리는 선재동자로 구성된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작품과 같은 도상의 원류는 돈황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이런 도상은 중국 내륙에서도 제작되어 고려에까지 파급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일본 大德寺 소장품의 제작시기는 14세기 전반기를 약간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韓國美術研究所(編), 『해설편-高麗時代の佛畫』, 서울:시공사, 1996, p.89.

10) 임명미, 『한국의 복식문화(I)』, 서울:경춘사, 1996, p.449. 456.



(그림 7) 부모은중경중 변상도 여인상
『한국의 복식문화(1)』



(그림 8) 木偶 여인상
“木偶像의 服飾考察”



된다. 상은 저고리 밑에 입었으며 다만 치마 허리 끈이 나란히 길게 늘어져 있다. 폭의 차이가 있을 것이나 서민계급은 폭이 좁아졌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같이 치마 위에 저고리를 착용하는 양식에 대해, 특히 몽고 복식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文姬歸還圖』(중국의 仕女畫 元美特別展圖錄에서 陣居中畫 : 1201~1204년) 나오는 여성들의 복장(그림 9)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의 저고리, 치마와 흡사한 것이 있는 점에서 몽고복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는 설과 전래의 고려의 차림새가 원에 전해져 高麗樣의 한 예로 원에서 유행하였고 다시 고려에 전해졌다고 하는 설도 있다.¹¹⁾



(그림 9) 文姬歸還圖 일부(橋착용)
『仕女畫元美特別展圖錄』

그러나 몽고복 자체가 우리의 전통복식인 스키타이계통의 복식과 같은 줄기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볼 때 우리의 기본 복장인 襦袴의 착장방법에서 연유된 襦裳의 착장방법이 몽고의 것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되어 통일신라기에 들어온 당, 송의 착장방법은 귀족층에 한해서 착용

하고 남자의 편복과 마찬가지로 여인들의 편복으로서의 襦裳의 차림새는 우리 고유 착장방법과 병행되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고려말에 전해진 官服들은 명나라 제도를

11) 김미자, “치마 저고리의 차림새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제10차 추계 학술발표회, 1988, pp.48~49.

따르고 있으나 조선조에 들어와서 여인들의 편복류들은 명나라 여인들이 당, 송의 襦裳의 착장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조의 여인들은 지금과 같은 치마 위에 저고리를 입는 고유 양식을 지키고 있음을 볼 때 고려조의 襦裳의 착장 방법도 원 복속기의 일시적인 착장방법의 변화가 아니라 고대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전통 양식이 계속되어져 내려오다가 약간씩의 깃모양의 변화나 길이의 변화에 따른 여밈 방법에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되며, 통일신라기의 착장방법인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는 양식과 혼재되어 사용되다가 점차 조선조에 들어가면 지금과 같은 치마 위에 저고리를 입는 착장방법으로 통일된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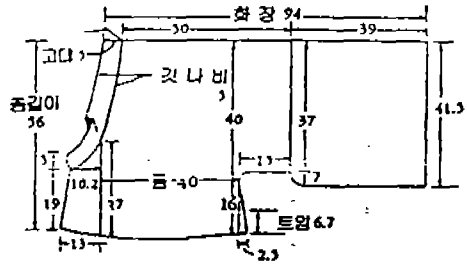
2. 襦·裳의 樣式

(가) 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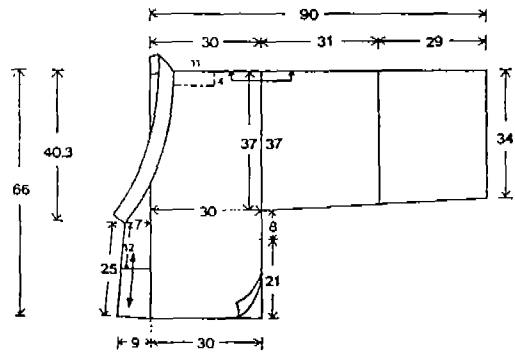
고려시대 여인 착용 襦의 형태는 14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온양박물관 소장품에서 볼 수 있다.

깃에 쓰여진 墨書¹²⁾에 綉脊衫으로 표현되어 있는 되어 있는 상의(그림 10)가 있는데 조선조의 적삼이 이것으로 적삼은 홀으로 된 것으로 赤衫, 또는 的衫으로도 일컫는다. 『고려도경』에서는 그저 ‘衣’로서 표현되기도 하였던 것이다.¹³⁾

온양박물관 소장의 상의는 고대의 襦가 변한 것으로, 길이가 짧아지고(총길이 56cm), 여밈이 重裾形으로 변했으며, 異色 이 없어지고 옆트임이 생겼다. 한편 소매너비는 37cm, 수구는 41.5cm로 소매통이 이례적으로 넓고 진동선에서 갑자기 넓어지고 있는 것은 그 요인을 알 수가 없다. 화장은 94cm로 지금의 저고리에 비해서는 매우 길지만 함께 발견된 포형태의 紫衣의 128.5cm나 中衣의



(그림 10) 綉脊衫(온양민속박물관) 實測圖
“高麗服飾樣式-여자복식을 중심으로”



(그림 11) 모시적삼(해인사) 實測圖
“海印寺 金銅毘盧遮那佛 腹藏服飾과 高麗後期 衣服의 特性”

142cm에 비해서는 그다지 길지 않고 다만 당시의 상의의 착용양식이 손등을 완전히 덮는 정도였으리라 생각된다. 즉 『高麗圖經』에 보이는 “손에 부채를 들었다 하더라도 손톱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흔히 絳囊으로 이를 덮었다” 하는데 아마 소매자락 자체가 길어 손등을 완전히 덮는 것이었을 것이다.

여밈에서는 대가 없어지면서 고름이 생기는 과정에서 그 첫단계로 매듭단추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매듭단추는 걸깃의 끝과 안깃 끝에 달고 단추

12) 상의에는 “腹藏入教是綉脊衫納宰臣兪弘愼妻李氏”라고 묵서로 쓰여있다.

13) 『고려도경』에 ‘綠衣, 紫衣, 阜衣, 紫羅窄衣, 袍窄衣, 緋窄衣, 紫文羅窄衣, 紫窄衣, 紫羅窄衣’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衣’는 온양박물관 소장품에 ‘紫衣’라는 명칭이 쓰여진 복식 형태로 보아 襦의 모습이 아니라 전형적인 포의 길이 정도를 하고 있으므로 문헌에서 표기한 ‘袍’와 ‘衣’의 형태의 차이를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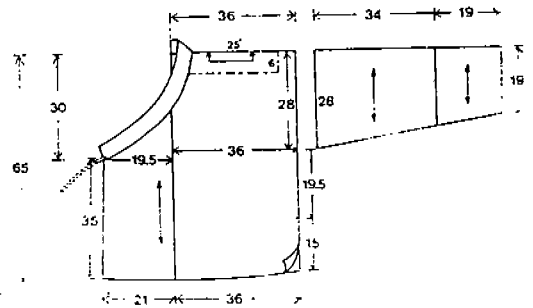
고리를 사용하고 있다. 매듭단추는 직경 0.5cm도 안될 정도로 작고, 단추고리는 단추와 같은 감으로 시접까지 10cm 길이에 0.4cm 나비의 감을 접어서 꼬아, 반으로 접으면 5cm 길이가 된다. 이것을 겨드랑 밑에 달고 있다. 단추를 끼울 때는 꼬임을 벌리고 끼워야 하며 따라서 단추가 빠질 염려가 없다.

한편 남자의 의복류이긴 하지만 거의 동시대인 14세기의 상의 류의 유물로는 海印寺 金銅毘盧遮那佛 腹藏服飾¹⁴⁾들이 있다.¹⁵⁾

여기에서 발견된 모시적삼(그림 11)은 길이가 66cm이고 깃과 쇠이 좌우대칭형이고 목판깃형이다. 옆선은 일직선으로 내려오고 옆트임이 있다. 소매는 진동나비 37cm에 소매부리 34cm로 지금의 저고리에 비해 소매통이 넓은 편이나, 전술한 納脊衫보다는 좁은 편이며, 포형인 紫衣나 中衣의 소매모양과 오히려 더 비슷하다.

여밈 처리는 끈고름 흔적은 없고 우측겨드랑이에 약15cm 정도의 실오라기가 겨우 붙어 있어 阿彌陀佛 腹藏 服飾의 紫衣에서와 같은 꼬아 만든 매듭식 여밈이었다면 걸깃 쪽에도 실을 꼬아 만든 솟매듭단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같은 길이의 실끈을 걸깃 쪽에 달았을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유물인 생모시적삼(그림 12)은 따로 분리된 소매 두장과 한 벌이 되는 옷으로 소매의 밑도는 몸판에 비해 성글다. 길이는 65cm이고 걸쇠의 아래 위 치수차도 적고 모시적삼과 마찬가지로 옆선이 일직선으로 내려오고 옆트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밈 처리는 끈고름 흔적이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쪽과 걸깃 쪽에 남아 있어서 끈



(그림 12) 생모시적삼(해인사) 實測圖
“海印寺 金銅毘盧遮那佛 腹藏服飾과 高麗後期 衣服의 特性”

<표 1> 유물 실측 치수

단위 : cm

유물명 항목	納脊衫 (은양박물관)	모시적삼 (해인사)	생모시적삼 (해인사)
뒷길이	56	66	65
앞길이	56	66	64
화장	94	90	89
품	40	30	36
진동	40	37	28
수구	41.5	34	19
걸쇠나비 ^上	10.2	7	19.5
걸쇠나비 ^下	13	9	21
걸깃길이	53	43.5	41
깃나비	5	4.5	4.3
고대	10	12	12
옆트임	6.5	21	15

* 실측치수는 柳喜敬·權瑛淑·李珠英·張賢珠 論文에서 인용

고름으로 여밈 것 같다. 끈나비는 약 1cm이며 길이

14) 海印寺는 1997년 3월 佛像을 改金하는 과정에서 의복11점과 指空스님(1300~1363년)이 覺慶스님에게 戒를 주면서 내린 文殊最上乘戒法이란 戒牒을 발견했다.

조선일보 1997, 3, 6 46면

15) 이 의복들은 요선철리의 발원문에 기록된 송부개의 인적사항과 답호의 주인인 이승밀의 인적사항으로 미루어 1350년을 전후한 1300년대의 의복으로 추정된다.

權瑛淑·李珠英·張賢珠, “海印寺 金銅毘盧遮那佛 腹藏服飾과 高麗後期 衣服의 特性”, 성보문화재연구원 학술발표회, 1997. 5

는 알 수 없다.¹⁶⁾

유물의 숫자가 너무 적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들 유물과 도상들을 비교하여 고려시대 襦의 양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참조>

우선 유물의 길이는 지금의 재킷 정도의 길이를 하고 있으므로 엉덩이를 약간 덮는 정도였으리라 생각되며 이는 치마 위에 襦를 착용하고 있는 도상들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우리 古代 襦의 여밈이 直垂形인데 비해 重裾形으로 변했으며, 깃은 깃들레에서 도련까지 異色襟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고려시대 언제 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異色襟이 없어지고 목판깃이 달리고, 옆트임이 생겼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밈 방법에 있어서도 古代부터 고려 중엽까지 있었던 띠가 없어지고 아주 짧은 고름이나 매듭단추를 사용하고 있음이 주목된다.¹⁷⁾

한편 襦의 소매모양에 있어서는 전술한 屯馬里古墳 壁畫女人像(그림 1)은 소매통이 아주 좁아 보이고, 서민여인상으로 보이는 방배동 출토 木偶像(그림 8)은 그보다는 조금 넓고 길이가 길어 보이며, 觀經序品變相圖 侍女像(그림 2)이나 水月觀音圖 여인상(그림 5)들이 착용한 襦의 소매통은(그림 8)보다 좀더 여유로워 보이며, 觀經十六觀變相圖女人像(그림 3)이 착용한 襦의 소매는 이들과는 다르게 소매부리쪽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있어 綃脊衫의 소매모양과 일맥 상통하는 점도 있어 보인다. 즉 유물과 도상들을 비교해보면 襦의 소매모양은 襦裳의 착용방법과 상관없이 소매부리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窄袖形과 좀더 길고 여유로운형 그리고 소매부리쪽이 더 넓기도 하는 형 등 다양한 형태가 공존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襦의 유물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河湊부인 초상화(그림 4)의 襦의 모습이나, 水月觀音圖

女人像(그림 5)의 襦에서 동정이 달려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前述한 은양박물관 소장 의포의 형태인 '紫衣'에 실제로 동정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 袍類나 襦類 모두 동정을 다는 경우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나) 裳

치마 유물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그 정확한 형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그림이나 木偶像을 통해서 본 '裳'은 치마허리를 다른 감으로 달아서 입은 것으로 보이며, 치마허리끈을 앞으로 길게 늘어뜨리고 있기도 하였으며(그림 6, 8) 이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또한 觀經序品變相圖 侍女像(그림 2)에는 치마 뒤로도 홍색 장식매듭을 한 組를 길게 늘이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하겠다.

그런데 觀經序品變相圖 侍女像(그림 2)의 치마는 매우 길어서 바닥에 끌리고 있는데 비해, 서민여인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木偶像(그림 8)이 착용한 치마는 그다지 길지 않고 폭도 좁아 보여 계급에 따른 치마 길이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아니면 일상복과 예복의 길이 차이로도 볼 수 있겠다.

그런데 裳에는 宋式의 裾端에 주름장식단을 가한 鳳尾裾이 왕실을 중심으로 착용되었다고 하는데¹⁸⁾ 이는 袍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의 밑자락으로 보이는 경우이고 襦裳의 차림새에는 이같은 주름장식단을 따로 다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다.

III. 結 論

이상으로 고려시대 여인들의 裳의 착용방법과 그 형태를 도상과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6) 權瑛淑·李珠英·張賢珠, Op. cit. pp.132~33. 170~71.

17) 柳喜卿, "高麗服飾樣式", p.127.

18) 채금석, "佛畫속에 표현된 服飾의 構造와 形態研究—高麗時代를 중심으로", 『服飾』 제23호, 한국복식학회, 1994, p.21.

고려시대의 여인들은 상류층의 경우 통일신라 시대부터 착용되었던 중국식의 복장인 襦를 먼저 입고 그 위에 裳을 착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이어 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인들의 경우는 고대로부터 답습해온 우리 고유 복장인 裳위에 襦를 착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이어오며 약간씩 변화해 내려왔음을 보여준다.

우선 유물의 길이는 지금의 재킷정도의 길이를 하고 있으므로 엉덩이를 약간 덮는 정도였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여밈이 重裾形으로 변했으며, 고려시대 언제 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異色襟이 없어지고 목판깃이 달리고, 옆트임이 생겼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襦의 소매모양은 襦裳의 착용방법과 상관없이 소매부리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窄袖形과 좀더 길고 여유로운형 그리고 소매부리쪽이 더 넓기도 하는 형 등 다양한 형태가 공존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밈 방법에 있어서도 古代부터 고려 중엽까지 있었던 띠가 없어지고 아주 짧은 고름이 달리거나 매듭단추를 달고 있었다. 깃에는 동정을 다는 경우도 있었다.

그림이나 木偶像을 통해서 본 ‘裳’은 치마허리를 다른 감으로 달아서 입은 것으로 보이며, 치마허리끈을 앞으로 길게 늘어뜨리고 있기도 하였으며, 치마 뒤로도 홍색 장식 매듭을 한 組를 길게 늘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계급에 따른 치마 길이와 폭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도 생각되며, 한편으로는 일상복과 예복의 차이로도 볼 수 있다.

본 考는 조선시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우리의 襦裳의 차림새 및 형태를 살펴보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하며, 다만 圖像과 너무 적은 유물을 중심으로 考察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물이 발굴되면 지속적인 보충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 김미자, “치마 저고리의 차림새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제10차 추계학술발표회, 1988.
- 金元龍(編), 『韓國美術全集』4 壁畫, 서울: 同和出版社, 1980.
- 문광희(역), 杉本正年, 『동양복장사논고』중세편, 서울: 경춘사, 1997.
- 朴聖實, 李秀雄(譯), 華梅, 『中國服飾史』, 서울: 경춘사, 1992.
- 백영자, 『한국복식』 한국방송대학교 T.V 강좌. E.B.S. 제작 1991~1998 현재까지 방영
- _____, 『한국의 복식』, 서울: 경춘사, 1993.
-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대출판부, 1974.
- _____, “腹藏物 중 服飾의 樣式과 特性”, 1302년 阿彌陀佛腹藏物 연구발표회, 1990.
- _____, “1302년 阿彌陀佛腹藏 服飾의 樣式과 特性”, 온양민속박물관편, 1991.
- _____, “15世紀 服飾의 樣式과 特性-申末舟 契會圖를 중심으로”, 『韓國服飾』 제10호,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 1992.
- _____, “高麗服飾樣式-여자복식을 중심으로”, 학예지 4, 육사 육군박물관, 1995.
- 李京子, “木偶像의 服飾考察”, 『服飾』 제2호, 한국복식학회, 1978.
- 임명미, 『한국의 복식문화(I)』, 서울: 경춘사, 1996.
- 權瑛淑·李珠英·張賢珠, “海印寺 金銅毘盧遮那佛 腹藏服飾과 高麗後期 衣服의 特性”, 성보문화재연구원 학술발표회, 1997. 5
- 채금석, “佛畫속에 표현된 服飾의 構造와 形態研究-高麗時代를 중심으로”, 『服飾』 제23호, 한국복식학회, 1994. (1987년도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한국방송대학교 백영자).
- 韓國美術研究所(編), 『高麗時代의 佛畫』, 서울: 시공사, 1996.
- _____, 『해설편-高麗時代의 佛畫』, 서울: 시공사, 1996.

ABSTRACT

A study on the Style and Form of the Yoo(; 襦) · Sang(; 裳) in Koryo Women

There are two styles of Yoo(; 襦) Sang(; 裳) in Koryo Women. One they wore the Sang(; 裳) over the Yoo(; 襦), the other wore the Yoo(; 襦) over the Sang(; 裳).

In the Yoo(; 襦), Double breast style(; 重裾形) was used for the adjustments of these clothes. Neckline and hem line were substituted by rectangular collar(; 목판깃). Knot-button, Coat-string(; Okgolum), White straight collar (DongJung), side slit were used.

In the Sang(; 裳), Chimaheri(; 치마허리) was made of another fabric and Chima-string was dropped.